

# 기도중 비구니스님 폭행... LG건설 만행 이모저모



◇200여 비구니스님들은 21일 조계사에서 '여성 성직자 인권유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18일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 직원들에 의해 무참히 부서진 의정부 송추 농성점의 임시법당.



◇LG건설이 동원한 50여 청년들에 의해 중상을 입은 성태(왼쪽), 성환, 법현스님 등 비구니스님들.

## 무참히 파괴된 법당

○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 직원들이 18일 오전 7시 30분 의정부 송추농성장에 들어와, 포크레인 등 동원해 법당 건물들을 무참히 철거했다. LG건설은 이날 9시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약속했지만 스님들이 아침 공양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사를 강행했다.

## 회룡사 스님들 중상

○ 성태, 성환, 법현 스님 등 회룡사 비구니 스님들은 LG건설이 동원한 50여명의 건장한 청년들에 의해 팔목인대가 늘어나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인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스님들은 현재 의정부 신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측은 사과나 케어 병 문안도 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 LG, 항의문 접수 거절

○ 북한산 회룡사, 월정사 지장암, 백양사 천진암, 동화사 양진암 등 전국에서 모인 200여 비구니 스님들은 21일 LG그룹본사가 있는 여의도 쌍둥이빌딩을 방문, 항의문을 전달코자 했으나 LG그룹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했다. 이에 앞서 스님들은 조계사에서 '여성 성직자 인권유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인터넷 항의글 잇달아

○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를 비롯 각 교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비구니 스님을 폭행하고 가사를 찢고, 수심미터를 끌고 가다니' 등의 항의성 내용과 '조계종단 이번에는 제대로' 등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달았다. 또한 'LG상품 불매운동 전개하자'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 성보박물관대학 문화전법사 첫배출

통도사주지 현관 성보박물관은 20일 박물관 1층 홀에서 가진 통도사성보박물관대학 문화지도자 과정 수료식에서 33명의 문화전법사를 배출했다. 국내 사립박물관으로는 최초 개설된 문화지도자과정을 다친 정만수 외 33명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월드컵, 아시안경기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서 문화포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 불교교사대학 3기졸업식 거행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영은)은 20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법당에서 제 3기 졸업식 및 4기 입학식을 병행했다. 어린이 법회 지도자양성 전문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이날 김명주 외 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정규반 80명과 통신반 20명의 신입생으로 4기 과정을 시작했다.

## 목탁소리

### 이 경숙 (취재1부 부장)

20일 정토회가 밝힌 4차 1000 일 결사 사업계획에서 유독 눈길을 끈 부분은 '공양주'를 위한 '공양주'의 변신이다. 환경이라는 말이 생소했던 10여년전부터 환경 및 사회 운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던 유정길씨는 '불교환경=유정길'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불교환경운동의 '선구자'적인 존재다. 유정길씨가 10여년 일해왔던 환경교육원의 사무국장 감투를 버리고 이번 정토회의 조직순환에 따라 '공양주'를 자청했다는 이야기는 신선한 감동에서 일어난지 비추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 같다.

## 공양주로의 변신

하게 소회를 밝혔다. 출가한 행자가 가장 먼저 맡게 되는 일이 대부분 '공양간 일'이다.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만들고 하는 허드렛일의 반복을 통해 행자들은 그동안 알게모르게 배어 있던 상(恨)이나 자만심을 버리고 저절로 하심을 익히게 된다. 40이 넘는 나이에, 환경전문가로 불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명인사인 유정길씨가 공양간 일로 하심 쌓기와 수행에 매진해 가겠다는 결심은 '자리'나 '지위'에 집착하는 일부 교계인사들에게 경종이 된다. 발전과 쇠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커닝 욕을 먹으면서까지 장기간 요지부동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비추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두타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한 나무에서 3일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공양주로서)셋바라지 하고 싶다'고 답했다.

# “불교문화재 국제법 보호받게”

### 안영일 구청장 法博논문 “훼손·밀반출 국제기구서 제재”

불교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법적 보호조치가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안영일 부산진구청장(부산삼광사 신도회장은 22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국제법상 불교문화재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마약밀매 행위들 인류의 공적으로 단속하듯이, 불교문화재 훼손이나 불법적인 밀반출 등은 국제기구 관할권하에서 강력히 단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노력을

크게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적 응징, '불법 반출되거나 약탈된 문화재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제법의 해석과 국제조약 및 의정서 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 중에서도 특히 전시나 무력행위로 약탈되거나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노력으로 1954년의 헤이그 협약과 의정서, 1970년 UNESCO 협약의 기본정신, 1995년 Unidroit 협정 및 UN 총회결의 등에서 나타난 '원소유국으로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원칙'을 국제관습법에서 보다 구속력이 강한 강행법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씨는 "우리 정부가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방안과 국제법상 일반적 해결방안인 중재, 주선, 심사, 조정 등의 방법과 중재재판, 사법재판 등으로 문화재 되찾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구청장은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불교문화재 국가들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들이 문화재보호에 관한 이념과 원칙으로 제시한 '공동 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재 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불교문화재 회원국심의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 15사단 신교대 군법당 건립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와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법당이 건립된다. 육군종합군수학교 호국관습사(주지법사 법광)는 오는 4월부터 부지 500평, 건평 60평 규모의 군법당 건립공사에 착수한다.일주문을 포함, 총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공사에는 조계종에서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호국관습사=017-361-9600, 천불사=017-675-6868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손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계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 당신께서 투지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법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